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함성’ 그리고 수배생활



손호만_ 경북대 역사교육과 77학번, 대구 '일꾼의 집' 상근실무자, 대구 노동교육협회 대표, 대구 건설일용노동조합 결성(철근분회 상근자), 대구 달서공업고등학교 교사(현)

1978년 11월 7일!

그날 대구 시내에서 벌어질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삼엄하고 살벌한 폭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민청학련 사건의 대대적인 검거선봉과 인혁당 선배들의 처참한 죽음.

그 '죽음의 공포'가 광풍처럼 대구를 휩쓸고 지나간 지가 불과 3년 전인데 ...

그날 대구는 대학생들의 해방구였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그 함성'

그날 대구 시내에는 해방구였다. 적어도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러했다. 시위의 앞 대열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사이 후미의 다른 학생들은 시내 중심가를 휘젓고 다녔다. 시위대는 점점 늘어났고 격렬해졌다. 시내 전역에 시위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경찰은 더이상 시위대를 저지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경찰은 그저 경찰서를 그것도 무기

고만을 지키기에 바빴다. 시위대는 대구 시내 전역을 휩쓸고 다녔다. 가두의 시민들과 특히 시장 아주머니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 주었다. '박정희 물러가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물가도 내려달라고 그래'라고 하면서 빵과 우유,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늦도록 시위를 했다. 밤 늦도록 돌아 다니다 지쳐 교내로 돌아왔다. 내일 경북대에서 다시 모여 계속 시위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날 시위대는 몇 갈래이며 대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아직도 다 알지 못한다. 단지 경북대생 8천여 명이 거의 모두 참여했을 거라는 점과 시내에서는 다른 대학 학생들과 시민도 참여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이튿날 북부경찰서장은 곧바로 직위 해제 되었다.

아~ 대구!

3년 전 민청학련, 인혁당 선배들이 당했던 그 참혹함에 한풀이라도 하듯 성난 파도가 되어 대구를 해방시켰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그날의 그 함성'을 생생히 기억하리라!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가 있다.

팔천 건아 외치는 그날의 그 함성

외쳐진 그 함성에 민중은 잠잠다.

찢어진 치맛자락에 돌은 굴러도

가슴엔 하나 가득 환희의 눈물.

일침담 쏟아지는 물 민중을 적시고

민중의 분노가 충천하도다.

다음날의 시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다.

대구 시내 모든 대학에는 휴교령이 떨어지고 대학교 정문 앞에는 탱크가 버티어 섰으며 교내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다.

다음날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날의 시위 소식은 소문에 소문을 더해 삼시간에 대구 시내 전역과 경상북도, 부산, 경상남도도 퍼져나갔다. 휴교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포트로

2학기 수업과 시험을 대신한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영웅담처럼 11월 7일 시위사건을 이야기했다.

곧이어 있었던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명성을 내세운 대구의 무소속 후보가 전국 최다득표를 하는가 하면 제1야당 신민당은 최초로 전국득표율에서 1.1%차로 공화당을 눌렀다. 여기에 고무된 김영삼은 선명 야당을 내세우며 강경노선을 강화해 나갔고, 급기야 YH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직마저 박탈당하니 이는 부마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시위의 시작

78년 11월 7일, 그날 시위의 첫 시작은 낮 12시 정각에 경북대 중앙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시작되었다. 12시가 되자 학생들은 비밀리에 살포된 유인물을 들고 시계탑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삼시간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어느 정도 성공을 직감한 나는 김병호 선배(경북대 철학과)와 함께 화단 위로 올라 섰다. 단 들어서 시위를 주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내 잠복형사들에게 초동에 진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학우 여러분, 나는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연설을 줄이고 곧바로 애국가를 시작했다. 빨리 시위대열을 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애국가는 너무도 길었다. 1절을 다 부르기도 전에 군중속에서 “빨리 스크림 짜자, 형사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속히 스크림을 짰지만 100m도 채 못 가서 형사들이 덮쳤다.

그러나 형사들 5, 6명이 주동자를 연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경도 출동하였지만 그들은 교내로 진입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잠깐 사이에 시위대는 1,000명, 2,000명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경과 학교 정문에서 대치했다. 이때는 우리도 저지선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교정을 한 바퀴 돌아 후문에서 대치할 때 쯤에는 이미 학생의 숫자가 수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거대한 시위대열이 후문에서 대치하기에는 문이 너무 좁았다. 급기야 대열의 뒷부분은 담장을 헐고 가두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거꾸로 포위된 형국이었다. 학생들의 분노를 교내에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학생들은 이미 며칠 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분노한 이유

11월 7일 시위가 이토록 삼시간에 거대하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일 전 유신정권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2일 경북대 구국선언문 사건이 그것이다. 사실이 사건이 있었기에 11월 7일 시위는 존재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이 날이 훨씬 조직적으로 잘 준비된 시위였다. 시위 주동지도 5명이나 되었고 선언문의 내용도 좋았다. 그러나 이 시위는 단 몇 분만에 무참히도 깨졌다.

이날의 시위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초토화된 이후 처음 시도하는 의미있는 시위였다.

이날도 집결 장소는 시계탑이었다. 선언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 앞에는 100~200여 명의 사람이 있었고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몇 백 명은 되었다. 그러나 낭독이 끝나고 시위대열을 채 꾸려보기도 전에 주동자들은 형사들에게 저지당했고 이내 연행되어 버렸다. 너무나 허무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긴 했지만 그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시위를 하러던 그 자리에 곧바로 전경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요란한 군화발 소리를 내며 구호를 외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며 학교를 점령했다. 군사작전을 하듯, 삼삼오오 모여있는 학생들을 겨냥해 해산을 종용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학원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짓밟히는 현장을 너무도 똑똑히 목격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숲속 여기저기서 야유 소리가 들려왔다.

‘성난 파도’ 가두로 진출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5일이 지난 11월 7일의 시위는 처음부터 달랐다. 주동자는 빈약했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또 수천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열은 금세 과감해져 갔다.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투석전을 전개했다. 여학생은 치맛자락에 돌을 날렸다. 드디어 담장을 헐고 가두로 진출한 시위대열은 도청교를 건너 시내 중심지로 향해 나갔다. 경찰은 다시 중앙통 바로 입구라 할 수 있는 대구역 부근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공포탄, 최류탄을 쏘아댔지만 대열은 이미 성난 파도가 되어 있었다. 대열의 선두가 경찰과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 대열의 뒷부분은 두 패로 나뉘어 대구역과 제일모직 담장을 넘어 중앙통에 진출했다. 경찰의 저지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대구시내 전역은 이제 학생 시위대의 해방구가 되었다.

경북대 학생운동이 다시 분출되기까지

여기서 잠깐 78년 당시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의 조직상황을 언급해 본다면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경북대는 잠시 활동의 잠복기를 갖는다. 이는 워낙 조직적인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72학번 김용원 선배와 75학번 선배들의 노력으로 76년, 77년을 거치면서 활동력이 복구되고 78년부터는 여러 대학과 연합수련회를 가질 만큼 성장했다. 경북대에서는 주로 복현독서반과 KSCF라는 서클을 통해 활동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대략 이런 정도다. 누군가, 특히 75학번 선배가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찌됐건 선배들의 노력으로 이제 경북대 학생운동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조직적인 노력들이 78년 11월 시위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민주화운동의 또다른 상징이 있다. 그것은 염매시장에 있는 곡주사라는 식당이다. 이곳은 서울의 학사주점 이상으로 대구 지역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막걸리 식당이다. 인혁당 선배들의 너무도 억울한 죽음 때문에 식당 이름도 곡할 곡(哭)자를 붙여 곡주사라 했다. 이곳은 거의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민주화운동의 토론장이었다. 그것도 대구 시내 모든 대학 학생들의 공동토론장이었다. 어찌됐건 이러한 꾸준한 흐름들이 있었기에 78년 대구 시위는 폭발했다.

수배생활이 시작되다

시위를 주동했던 김병호 선배와 나는 참으로 순진한, 돌이켜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시위 현장에서 잡혀 가기로 약속을 했다. 시위를 주동하고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경찰에게 불순분자의 배후조종이라는 악선전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휴교령이 떨어졌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김병호 선배와 나는 구속이 되었어야 했다. 학교 밖까지 진출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둘은 시위를 주동한 후 학교 안에서 자진해서 잡혀가자고 계획했다. 그러나 시위가 커지고 형사들과 육박전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막을 테니 너는 도망가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신하라고 했다. (특히 김진덕 선배는 형사들과 주먹이 오고가는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자진출두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뛰어서 도망을 시작했다. 형사 한 명이 따라 붙었다. 약 500m 정도를 뒤쫓아오더니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사를 따돌린 나는 기독학생 기숙사 화장실에 숨었다. 한참 후 경대 쪽에서는 최루탄 터지는 소리 같은 폭발음과 학생들의 합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 어떤 학생들이 학생들이 헬레벌떡 화장실을 들어왔다. 숨죽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위대열이 가두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시위가 성공했구나. 이제 잡혀가도 여한이 없겠구나고 생각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저녁 때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빨리 컴컴한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두 시간을 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았다. 냄새도 났지만 혹 형사가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기숙사와 화장실 수색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죽여 있었다. 드디어 날이 어두워지고 나는 지옥 같은 화장실에서 나와 우선 안전하다 생각되는 고향 친구의 자취방에 몸을 숨겼다.

친구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김병호 선배는 경찰서로 잡혀간 것 같았다. 약속을 깨고 나만 피신한 것이 미안했다. 지금 이순간 전화도청을 피해 안전하게 조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K(KSCF의 줄임말) 활동을 같이 했던 계명대 권약한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자 그 선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우리집으로 오너라. 네가 피신할 곳과 옷가지를 다 준비해 놓았다”. 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형을 만나 가방 1개와 차비 정도의 돈을 받고 피신길에 올랐다. 경북 청송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니 정말 착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수배생활의 의미

누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감옥생활을 하겠느냐 수배생활을 하겠느냐 선택을 하라면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감옥생활을 택할 것이다. 감옥생활도 세 번 해보고 또 피신생활도 두 번 해보았지만 정말이지 피신생활은 너무 힘들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때면 한 번씩 수배생활 때의 악몽을 꾸다. 끝없이 경찰에 쫓기는 꿈, 화장실 속에서 저벽 저벽 발소리를 내며 경찰이 쫓아오는 꿈을 꾸다. 잠을 자는 나에게 경찰이 와락 달려들어 수

갑을 채우는 꿈, 그런 꿈을 꾸다. 사실 그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수배생활을 얘기할 여유도 없이 살아왔다.

첫 수배생활 - 경북 농촌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권오혁 씨 집으로 피신했다. 휴교령이 떨어져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라 “농사일 도와주러 왔다”고 하고 머물렀다. 한 달 가량 농사를 도우며 있으니 정부에서 예비군 비상소집을 했다. 마을 입구마다 예비군들이 총을 들고 경비를 썼다. 마을 지정벽보판에는 수상한 사람 세명의 인상착의가 그려져 있는 포스터가 붙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을사람들이 나를 의심쩍어 했다. 분위기가 삼엄해지니 계속 숨어있을 수 없게 되었다. 좀 더 골짜기로 들어가 김영원 장로 집에 의탁했다. 그러나 그분 역시 농민운동 하던 분이래 쉽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두 달 가량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고마운 모교의 선생님과 신부님

안전하게 숨을 곳은 어디일까 고민하다 원주 지학순 주교를 찾아가기로 했다. 지학순 주교는 나의 모교인 진광고등학교의 이사장이셨다. 천주교 시설 중 어디 한곳에 숨던가 아니면 최소한 숨을 곳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이계열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취해 이런 나의 생각을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만나지고 하셨다. 그리고는 지 주교님도 감시를 심하게 받는 편이니 사람이 많은 서울로 피신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다. 그게 좋을 것 같았다. 서울로 피신할 때는 외국인인 경베드로 신부님의 도움이 컸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신부님은 일부러 경찰에게 말을 걸고 나는 뒷좌석에 짐처럼 숨어서 서울까지 갔다. 이계열 선생님은 며칠 후 돈을 가지고 서울로 또 찾아와 주셨다.

수배 중 만난 김경숙 열사

서울 가서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의 KSCF에서 도움을 받았다. 기독교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집을 전전하다 면목동 동일교회에서 석 달 간 있었다. 그 교회의 부목사가 조성기 목사였

는데 그분 교회 사택에 나를 숨겨주었다. 거기서 나는 조 목사님의 동생으로 행동했다. 이 교회의 근처에는 가발공장인 YH공장이 있었는데 20명 정도의 여성노동자들이 동일교회로 야학을 다녔다. 이때 나는 야학의 임시교사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김경숙 씨를 만났다.

그녀와 나는 스물둘로 동갑이었다. 야학도 같이 하고 야유회도 같이 갔다. 야유회를 같이 갔을 때는 정말 너무도 즐거운 하루였다. 아마도 나의 수배생활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또 그때 YH노동자 중에는 강원도 원주(형성)의 고향에서 온 노동자도 있었다. 너무도 반가웠지만 나는 내 신분을 말할 수가 없었다. 수배생활의 외로움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김경숙 씨를 혼자 그려본 적도 있었다. 조성기 목사에게 김경숙 씨와 사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그는 기독교회관에 가서 거기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니 일주일 후에 대답을 주었다. 수배가 해제 되거든 그때 가서 사귀라는 것이었다. 나는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얼마 안 있어 교회 사정으로 은신처를 옮겼는데 우연히 라디오뉴스에서 김경숙 씨가 신민당사 4층에서 추락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길 바라면서 급하게 조성기 목사님께 확인 전화를 했다. 우리와 같이 지냈던 김경숙이 맞다는 얘기를 울먹이면서 들려 주었다. 나는 슬프기도 했지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YH공장의 그 심각한 상황은 거의 모른 채 야학의 학생으로만 김경숙 씨를 대해 왔었기 때문이다. 야학에서 본 그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데도 자기보다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참 잘 챙겨줬다.

나는 야학에서 야학의 과목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엘리트 지식인이 아니라 일반 민중, 노동자 서민이 역사의 주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곤 했다. 강의가 끝나면 그녀는 일부러 내게 찾아와 “평소 듣지 못한 좋은 말을 들려줘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야학에 같이 오는 우리 애들에게 좋은 교육내용이 되었을 것”이라 감사하곤 했다. 나는 나중에 되어서야 김경숙 씨가 노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의 짧은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하였던 내가 정말 부끄러웠다. 더구나 YH공장과 노조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나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잡히지 않기 위한 몸부림들

서울에서는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도 있었다. 어떤 날 하루는 지리도 잘 모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미아리에 대지극장이라는 곳이 나왔다. 아침을 라면으로 대충 요기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영화관 안에서 지내다 저녁 때 킴킴해지기를 기다린 적도 있다. 만화방에도 가 있었다. 영화를 보는 것도, 만화를 읽는 것도 아닌, 오로지 몸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다. 80년 이후에야 수배상태에서도 조직적인 활동 속에 일정하게 운동이 가능했지만 그때는 오로지 잡히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었다.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배생활이었다. 이리다 내가 먼저 죽을지, 박정희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다. 여관 숙박비가 만만치 않아 독서실을 한 달치 끊어 거기서 책상에 엎드려 자기도 했다. 그게 가장 짝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죽다

그러다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살 위의 누나가 성남에서 공장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누나를 찾아갔다. 누나는 성남 상대원동에서 자취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박정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도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전두환이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니 군부독재상황이 연장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피해 있었다. 뉴스에서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을 모두 사면복권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80년 2월경 학교의 우리 과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사면복권이 되었고 복학도 가능하다고 했다. 수배생활 13개월 만의 일이다. 그 전에도 수배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사면복권된 걸 모르고 두 달을 더 숨어있었던 셈이다.

가족들의 고통

수배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강원도 원주의 우리집에는 대구에서 파견된 경찰이 늘 잠복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 4시에도 구두발로 불쑥 들어와 장롱의 이불을 다 꺼내고 쌀독을 뒤지며 온 집안을 뒤엎어 놓곤 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어디에다 죽여 놓고 여기서 난리냐”며, 삼을 들고 “이놈들 다 죽인다”고 싸운

일이 여러 번 있다고 했다.

한번은 내 친구를 가장해서 형사들이 집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호만이 부탁으로 전화 하는데 서울에 숨어 있으니 돈을 가지고 청량리역으로 나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부모님께서 돈을 가지고 허겁지겁 강원도 원주에서 택시를 급하게 불러 타고는 서울 청량리역으로 갔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보이지 않아 실망한 마음으로 허탈해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쪽 골목에 숨어있는 사람이 낯익은 얼굴이라 자세히 보니 늘 원주의 우리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사복경찰들이었다.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짐작을 했다. 그리고는 그 경찰들에게 다 꺼져라 하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

나의 둘째 누나는 정말이지 나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였다. 재학 시절 때부터 내가 KSCF 활동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찾아가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굴 한 번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여러 번 울었다고 한다. 또 전국에 알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내 소식을 묻고 다녔다고 했다. 한번은 서울 화곡동 쪽으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길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황급히 버스를 세워 달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그만 사라져 버렸다 한다. 하도 서운해서 그일을 일기장에 적었는데 경찰이 그 일기장을 뒤져 보고는 동생을 어디다 숨겨놨느냐, 찾아내라며 누나를 괴롭혔다고 한다.